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 11일(목요일) 저녁 18시30분,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성아, 오유미, 이보운, 장현수, 박주희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봉성화, 이민경

상정안건

1. 2019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2. 2019년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
3. 2018학년도 결산서 자문
4. 기타 의견

○ 위원장: 지금부터 제6기 2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원장: 잘 지내셨는지요?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간사: 위원장님! 지난 1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구성, 안전계획, 2019 예산서 등에 대해 나누는 회의기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네. 탑재된 회의록 확인하였습니다. *** 서명처리**

<안건 1. 2019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

○ 위원장: 이번에는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셔서 읽어 보셨을텐데, 나누고 싶거나 검토할 내용이 있을까요?

○ 교원위원: 보시면 3세, 4세, 5세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연령별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에 처음 보내시는 3세의 경우, 격려와 제안이 골고루 많으시고,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보입니다.

○ ○○○위원: **독감, 전염병에 대한 안내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간사: 우리원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알린다고 알렸고, 중간보고들도 하였으나, 감기증상과 비슷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누구부터인지 파악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쉰다고 하고 결석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사실 학부모님들 중 내 아이가 걸렸을 때 반에 누가 걸려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 ○○○위원: 누가 병에 걸렸는지 밝혀달라는 게 아니라 발생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알려 내 아이가 비슷한 증상이 있을 경우, 미리 알면 더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는 사이 한반에 3~4명만 등원한 적도 있었어요.

○ 위원장: 전에 어떤 분은 유치원에 우리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알리고 자가격리 치료했는데, 다른 상황에서 초등학교 추첨식에 갔는데, 학부모가 “@@가 ## 걸렸다면서!” 크게 말하는 순간 다른 분들도 쳐다보고 해서, 당황하셨대요. 아이는 이미 다 나왔는데, 숙주가 된 기분이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 원장: 등원 시 열 체크, 육안체크로 1차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처와 안내에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종일반 활동에 대한 의견도 보입니다. 전에 이뤄진 요리활동이 좋았던 거 같아요. 반이 늘어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종일반의 활동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 간사: 종일반이 2반일때는 특색활동으로 요리활동이 있었는데, 3반이 되고서는 준비와 진행, 정리에 있어 시간 대비 어려움이 있어 요리 가꿈 하고, 대신 종이접기와 신체활동을 특색으로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는 스케치북에 작품집처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신체활동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유치원에 있는 만큼 신체건강과 발달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 교원위원: 종일반 교육안 뒤에도 활동사진들이 나가고 있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 간사: 이번 방학 중 종일반 추가 신청에 대한 불만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 단기운영이나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종일반 3반 이상 운영은 교육, 안전관리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배려차원에서 한 반당 2명 정도 추가해 총 6명 계획한 거였습니다. 오전8시 선착순인데, 총 12분이 그 시간에 넣으셨더라고요. 0.005초, 0.015초 등 초단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시에 맞춰 넣었는데 왜 안 된 거냐,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면서 안 되신 몇 분이 교육청 민원얘기도 있었고, 지속적인 불만제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 원장: 배려하고자 한 일이 서로를 곤란하게 만들어 겨울방학부터는 추가신청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간사: 교육안 뒤에 지난 활동보고 사진이 들어가는데 갤러리 게시를 제안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사에게 교육활동이나 준비 외에 사진 업무는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찍을 때 각도라든지, 나오는 아이들이라든지, 활동을 잠시 멈추고 순간을 담는단지도 쉽지가 않아요. 지난 주제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교육활동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직장인들의 경우, 소통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메모나 전화만으로는 제한적이니, 실시간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교사들이 핸드폰을 들고 교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을 어렵고, 가끔 홈페이지 온라인문의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 폰으로 알림이 오고, 담임에게 연계하기도 합니다.
- ○○○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 간사: 투약의뢰서가 키즈노트 등 어플에서 할 수 있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폰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확인이 어려우니, 어플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용지가 없을 경우 그냥 메모해 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통신문 올리는 곳에 투약의뢰서식을 늘 올려두고 있어요.
- 원장: 단체 소풍이나 체육대회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운동회는 개원행사 때 할 예정이고, 단체 소풍은 전세버스 카시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그 아쉬움을 연령별로 점심준비 부탁드려 견학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다녀왔어요. 점심준비 불편하셨죠?
- ○○○위원: 준비하는 것에 불편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보내시는 모습은 다들 미소가 있더라고요.
- 원장: 감사합니다. 전세버스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전체 가을소풍 대신에 1학기처럼 연령별 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 의견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들: (전원) 네.

<안건 2. 2019년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

- 위원장: 지난 유치원 종합감사와 관련해 보고해 주십시오.
- 원장: 내년까지 전체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00명이상 규모의 원이 대상이었습니다. 4월에 2일에 걸쳐 지역청 행정지원과 감사과 직원 4분, 청림시민감사관, 유아교육장학사 이렇게 총 6분이 방문하여, 2016~현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수유치원이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앞으로는 변화에 맞춰 행정적인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대신 제가 원장자격증 외에 영양사자격을 가지고 겸임을 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서류 미비가 있었습니다. 교원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핵검진으로 갈음 되는 줄 알았는데, 조리사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건증을 구비해야 하더라구요. 이에 주의를 받고, 바로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구비하였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간사: 자료에 있는 감사 처분 및 조치결과는 아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감사받는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 저희처럼 염려도 되셨을 텐데,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어 다행이고, 자체 점검을 통해 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감사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 3. 2018학년도 결산서 자문>

- 위원장: 다음으로 2018학년도 결산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자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항목에 대해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원장: 세출을 보시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중이 큼니다. 운영비라 함은 소모품이나 건물관리비라고 할 수 있고, 일반교육활동비는 교사연수, 교재교구구입, 교육행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적교육활동비는 방과후특성화, 체험학습비 등이고, 반환금이라 함은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 교육비반납 등입니다. 시설, 설비비는 전년에 3층 바닥재 공사와 건물 옆 비상대피로 벽면타일 보강공사가 있었고,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교체, 수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결산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검토사항 있을까요? 이렇게 2018학년도 결산서를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네. * 전원 동의로 2018학년도 결산서 자문 마무리

<안건 4. 기타 의견>

○ 위원장: 오늘 상정된 안건 외에 추가로 나눠야 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 원장: 학부모 의견조사 중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등원날, 햇님차에서 3세남아 한 명이 남아있었는데, 차량지도교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기사님이 주차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하차안전벨을 누르려다 아이를 발견해서 5분정도 지체등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육청지원으로 차량 2대에 모두 하차안전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침 차량지도교사가 신규였고, 신입유아들의 첫 등원 날이라 현관지도도 다소 어수선해서 세심하지 못한 결과, 놓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하차안전벨 덕분에 빨리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일 오전, 해당 유아학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도 당황했고,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죄송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날 차량지도교사가 사임을 표했고, 이에 원감이 2주정도 대신 타며 안정되게 차량지도교사를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교사와 차량기사님께 안전교육을 하며, 주의 당부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등원차량이 도착하고, 아이들이 내리면 지도교사와 원감 또는 원장이 마지막에 남은 유아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님께서 현관CCTV설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직접 운영은 100만원대, 대여는 설치비 40~50만원에 월8만원 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통학차량 관련하여 관리자안전교육을 받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크고 위험한 책임을 감당하며, 계속 원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심적인 부담이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당시 사실대로 안내하고, 하차안전벨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며, 부모님 요구대로 도착사진 문자 안내도 했으나, 현재는 현관CCTV설치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 되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교육, 관리, 운영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마음이 힘듭니다.

○ ○○○위원: 회의에서 솔직하게 그런 일들도 공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상관치 않지만, 유치원 선택 시, CCTV를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구요.

○ ○○○위원: CCTV는 소수긴 해도 의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속상했을 그 유아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그 만큼 안전에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앞으로 요구가 지속된다면,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위원: 많은 학부모님들은 약수교육과 운영에 만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 원장: 네. 말씀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원장: 교사 급식비 징수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유치원 교사는 별도의 식사 시간,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유아들과 함께 먹으며 지도를 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면 별도로 식비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간사: 3월 달에는 식사를 거의 제대로 못하고, 평소에도 10분 내지, 15분 만에 일어나 아이들 추가 배식과 식습관 및 정리 지도를 하십니다.
- 원장: 그래서 1인당 하루 2500원 정도이긴 하지만 교사들 점심시간의 바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식비 납부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 ○○○위원: 일반 직장인처럼 별도의 식사공간과 시간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식비를 걷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괜히 몰랐던 분들까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낸 급식비에서 교사들 식비도 포함된 거 였나? 라는...
- ○○○위원: 한 두 명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지도하며 함께 먹는 급식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재료로 교사들 먹는 양이나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기도 어려울 것 같구요.
- ○○○위원: 종합감사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은 교사 식비를 꼭 징수해라가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 동의를 구해 문제되지 않도록 기록해 놓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교사 급식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유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네. * 전원 동의로 교사 급식비 징수하지 않기로 함.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학기에 뵈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